



"정신은 처가에 간다 하고 외가예를 가겠다"

뜻: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다른 행동을 할 만큼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건망증 · 망각 · 혼동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정	신	은	↓	처	가	에	↓	간	다	
하	고	↓	외	가	에	를	↓	가	겠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정	신	은	↓	처	가	에	↓	간	다	
하	고	↓	외	가	에	를	↓	가	겠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자ㅅㅇ] [처가ㅇ] [거ㅇ] [흥ㅇ] [ㅇㅇㅇㅇ] [거ㅇㅇ]

웹에서 보기

